

KIA '복덩이' 한재勝

이적 후 1승 1세이브 1홀드
"한화전 마무리 긴장보다 설렘
운이 좋았다... 믿음 드리겠다"



호랑이 굴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KIA 타이거즈의 '이적생' 한재승이 승리, 세이브, 홀드를 연달아 기록하면서 '복덩이'가 됐다.

KIA 한재승은 지난 5일 열린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앞선 8회말 출격해 탈삼진 2개를 기록하는 등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14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한재승은 시즌 첫 홀드를 올렸고, 팀은 원정 12연전을 여는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7월 28일 트레이드를 통해 NC에서 이적한 그는 7월 31일 두산전에서 KIA 선수로 첫선을 보였다.

한재승은 1-1로 맞선 5회 1사 1루에서 출격해 이우찬과 케이브를 각각 유격수 땅볼과 삼진 아웃으로 잡고 이닝을 끝냈다. 6회 선두타자 양의지에게 역전 솔로포는 맞았지만 추가실점을 하지 않은 한재승은 승리를 기록했다. 6회말 변우혁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한 KIA는 7연패에서 벗어났고, 한재승은 승리투수가 됐다.

한재승은 8월 1일 한화를 상대로 한 두 번째 등판에서는 프로 첫 세이브를 수확했다.

전상현과 정해영의 휴식일이었던 이날 한재승은 3-2, 1점 차에서 9회초 마운드에 올랐다. 노시환을 삼진, 채은성을 유격수 땅볼로 쳐리한 한재승은 2사에서 안치홍에게 좌전 안타는 맞았지만 대주자 이상혁을 견제사로 잡고 승리를 완성했다.

그리고 롯데를 상대로 한 세 번째 등판에서는 홀드까지 올리면서 KIA 3연승 주역이 됐다.

새 팀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한 한재승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재승은 "시즌 첫승할 때 흥분해서 역전이 됐는데 야수 행렬, 선배들이 쳐줘서 역전이 됐다. 선배님들이 도와줘서 승리를 했다"며 "세이브할 때도 운이 따라줬다. 볼 던졌는데 상대 스윙도 나오고 준수형 리드도 좋았다. 마지막 견제도 운이다. 운이 많이 따라줬다"고 웃었다.

이러 "견제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 타이밍적으로 했다. 짧게 했다가 끝났다가 했는데 그게 잘 맞았다. 아웃 잡을 때는 길게 끝냈다. 던지고 나서 상황을 못 봤는데 감독님께서 비디오 판독 요청해 주셨다. 감독님 덕분에 세이브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한재승의 첫 세이브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재승은 "지금까지 투구를 했던 것 중에 한화전 9회 나간 게 가장 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솔직히 9회 1점 차에 나갈 줄 몰랐다. 마무리 나간 적



NC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이적생' 한재승이 첫 등판에서 승리를 거둔 뒤 이어 세이브, 홀드를 연달아 기록하면서 '복덩이'가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 없고 처음에는 얼떨떨했는데 뭔가 설레는 느낌이기도 했다. 꿈꿔왔던 것이니까 꿈을 이루고 싶었다"며 "감독님, 코치님 믿음에 보답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 밖에서는 수줍음이 많은 한재승이지만 마운드에서 모습은 다르다. 과감하게 자신의 공을 던지면서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는 "낮을 많이 가리는데 마운드 올라가면 던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어릴 때는 긴장 많이 했었다. 지금도 물론 긴장은 되지만 예전의 그런 긴장은 없는 것 같다. 배정있게 던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한재승은 새로운 안방에서 이적 후 첫 주를 보내면서 더 빠르게 새 팀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한재승은 "팬들이 환호도 해주시고 하니가 좋다. 많이 힘이 된다고 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 불펜카도 타보고 싶었는데 신기했다(웃음)"며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 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적응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선 세이브 상황에서 직구와 슬라이더만 구사했던 그는 5일에는 포크볼도 선보였다. 올 시즌 선발로도 준비했던 만큼 다양한 변화구를 이용해서 좋은 승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재승은 "원래 커브를 던졌는데 중간에서 하면서 슬라이더와 포크에 집중했다. 선발로 전환하고 한 달 반 정도 커브를 많이 던졌다. 앞으로 많이 써어서 하겠다"며 "원정이 긴데 일찍 자고, 많이 쉬고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좋은 경기 하겠다. 또 NC와의 경기가 있는데, 없던 힘도 다 써서 무조건 이기는 야구하겠다. 무대포로 자신 있게 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사직에서 원정 12연전 스타트를 끊은 KIA는 8일부터 NC를 상대로 트레이드 이후 첫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캐릭터 유니폼 2탄...이번엔 쿠로미다

19~21일 키움전 착용

KIA 타이거즈가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쿠로미'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지난 5월 '캐치! 티니핑'과의 협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KIA가 인기 캐릭터 컬래버 2탄으로 쿠로미와 만난다.

산리오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쿠로미 유니폼은 챔피언스필드에 놀러 온 쿠로미가 하랑이와 함께 타이거즈를 응원한다는 콘셉트를 담고 있다.

쿠로미의 상징색인 검정과 보라색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쿠로미의 매력 포인트인 귀와 화살표 모양 꼬리를 적용해 타이거즈 워드마크를 디자인했다.

왼쪽 소매에는 쿠로미와 하랑이가 응원하고

있는 모습의 패치가 들어간다. 양쪽 소매에 지그재그 패턴을 적용했고, 유니폼 후면에 T로고에 숨어있는 쿠로미 캐릭터를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선수단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3연전에서 쿠로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펼친다.

KIA는 이번 협업으로 유니폼과 레플리카 유니폼 2종 등 유니폼 3종을 비롯해 봉제 키링, 윌링 파우치, 메탈 머린, 반다나 등 총 16종에 이르는 컬래버 상품을 선보인다.

쿠로미 어센틱 유니폼은 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팀스토어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다. 레플리카 유니폼 2종 및 그 외 MD 상품은 19일부터 온라인 팀스토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이슬란드 국대 출신 프리드손 영입

196cm 키·스피드 좋은 공격수

광주FC가 아이슬란드 국가대표 출신의 홀름베르트 프리드손(32·사진)으로 화력을 보강했다.

광주는 6일 스트라이커 홀름베르트 프리드손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아이슬란드 출신으로는 첫 K리그 입성이다.

196cm·85kg의 프리드손은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중볼 싸움에 능하고, 헤더에도 강점을 보인다.

큰 키에도 빠른 스피드와 가속력을 보유한 프리드손은 왼발을 주발로 하지만 오른발 사용 능력도 좋다. 그는 또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마무리와 연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타겟형 공격수다.

이정호 감독 역시 높이와 결정력에 주목하면서 "박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옵션이 생겼다"고 프리드손의 문전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프리드손은 2010년 아이슬란드 HK 코파보구르를 통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4시즌에는 스코틀랜드 명문 구단 셀틱 유니폼도 입었다.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각국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노르웨이 올레순 FK에서 뛰던 2018 시즌에는 32경기에 나와 20골을 장식했고, 2019 시즌에는 27경기 8골의 활약으로 팀의 1부 리그 승격에 기여했다. 2020 시즌에는 1부 리그 15경기에 출전해 11골을 장식하기도 했다.



광주FC의 새 외국인 선수인 아이슬란드 국가대표 출신의 홀름베르트 프리드손이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눈에 띈다.

U-17, U-19, U-21 등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프리드손은 2015년 캐나다를 상대로 성인대표팀에 데뷔했다.

2020년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골을 장식하는 등 A매치 6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다.

프리드손은 "K리그에서 뛰는 첫 아이슬란드 선수라고 들었는데 매우 영광이다. 새로운 문화와

도전에 대한 열망이 광주로 이끌었다"며 "하루빨리 경기에서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광주는 지난 시즌 7골 5도움의 활약으로 '무등산 호랑이'라는 애칭을 얻었던 가브리엘과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시즌 막판 무릎 부상을 당했던 가브리엘은 올 시즌 8경기에 출전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김여울 기자 wool@



2024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회 티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성야구스포츠클럽이 '제6회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다.

〈전남도체육회〉

장성 유소년 야구 꿈나무 '아시아 도전장'

한국 대표로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 출전... 14일부터 일본서

장성의 유소년 야구 꿈나무들이 아시아 무대에 실력 발휘에 나선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장성야구스포츠클럽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쿠시마현 아난시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국제 티볼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다"고 6일 밝혔다.

장성야구스포츠클럽은 지난해 열린 '2024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회 티볼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이번 대회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됐다.

이번 대회는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8개국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티

볼대회다.

장성군 내 10~14세 유소년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그라운드에서 선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노력해 온 전남도체육회는 스포츠 대회를 넘어, 스포츠를 통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대표 장예찬 군(14)은 "야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일본까지 가게 돼서 신기하고 떨린다"며 "외국 친구들이랑 경기하는 게 기대된다. 흥분을 꼭 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